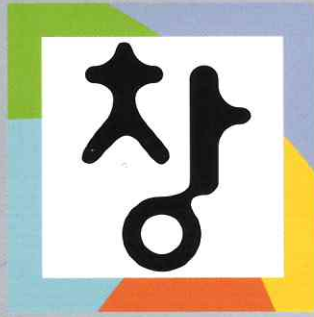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2012 9월호

기획 :

“나의 뿌리 대한민국
느끼고 배웠어요”

2012 멕시코 한인후손 모국체험 연수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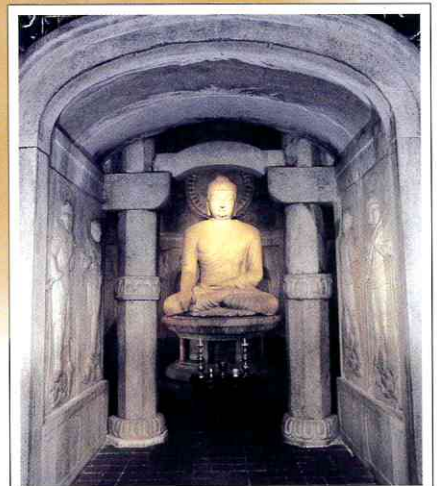


세계 유일의 인조 석굴 석굴암

수학여행 하면 으레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을 생각하듯이, 석굴암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유적지다. 국보 24호인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하여 혜공왕 10년(774)에 완공하였다. 당시의 이름은 석불사였다.

석굴암은 토함산 중턱에 백색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석굴을 만들고, 내부공간에 본존불인 석가여래불상을 중심으로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및 제자상과 역사상, 천왕상 등 총 40구의 불상을 조각했으나 지금은 38구만이 남아있다.

석굴암은 세계 유일의 인조 석굴이다. 석굴암 축조 과정에서 보여준 신라인들의 높은 문화 수준과 과학 기술, 그리고 종교성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높고 훌륭한 경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2012 9월호

- 2 **한국의 얼** 세계 유일의 인조 석굴 석굴암
- 3 **목차**
- 4 **특집** 동포사회 미래 이끌 한글교육 역량 강화
2012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 8 **기획** “나의 뿌리 대한민국 느끼고 배웠어요”
2012 멕시코 한인후손 모국체험 연수
- 10 **한민족공감** “선수들의 땀·눈물·도전 영원히 기억”
이명박 대통령, 런던 올림픽 종합 5위 선수단 격려
- 12 **화제** “재외동포와 우리는 하나” 전국 16개 고교 순회교육
재외동포재단, ‘찾아가는 동포 이해 교육’ 시작
- 14 **현장의 목소리** 한인 여성 리더들 기후변화 대책 모색
201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여수서 개최
- 15 **한상칼럼** ‘한상’ 브랜드와 세계한상대회의 미래
황희곤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 16 **지구촌 통신원** 동포사회, 뿌리찾기 광복절 행사 풍성
한인 2세에게 광복의 의미 알리다
- 17 **한글학교 탐방** 지역사회에 한국어 봉사료 위상 높인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글학교
- 18 **글로벌 코리안** 카자흐 역도 금메달 넷 일등 공신은 고려인 감독
이 알렉세이 국가대표 감독, 런던올림픽서 기업
- 20 **OKF뉴스**
- 22 **동포문학** 글릭 아우푸
서미라(독일) 시부문 대상
- 23 **동포 이민사** ‘주류 시민’으로 성장한 호주 한인사회
- 24 **나의 살던 고향** 낙동(洛東)에 숨겨진 유유했던 풍경... 경북 상주
-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재외동포재단은 8월 7일부터 1주일 동안 멕시코 한인 후손 33명을 초청해 모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한인 후손들.



발행인 : 김경근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2012년도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기간: 2012. 8. 7. (화) ~ 8. 14. (화)

장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주최: 재외동포재단

주관

재외동포재단은 8월 7일부터 8일 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전 세계에서 참가한 20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12년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동포사회 미래 이끌 한국 교육 역량 강화

2012년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2012년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 연수, 학교 경영과 리더십, 우수 강의 시연, 운영사례 발표 등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교사들은 여수 해양엑스포 등 전라도 일대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재외동포재단은 8월 7일부터 8일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2012년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유럽, 미주, 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52개국에서 총 202명의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경영과 리더십 교육,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대비 특강, 우수 강의 시연, 역사·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한글과 발음 교육 ▲문법과 기능교육

▲어휘와 문화교육 ▲국어와 어문규범 등으로 세분화해 한국어 교육을 진행했다.

김경근 재단 이사장은 "한글학교 교사들은 차세대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지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연수에서 얻은 교육 정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단은 각국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해마다 초청 연수를 열고 있다.

다양한 한국어 교수법을 배우다

동포재단은 한글학교 교사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한글학교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어 교육자 간 교류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포 2세들의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 참가자 대부분은 한글학교 교사들이다. 중국 및 러시아, CIS 지역 등 일부는 정규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말 한글학교다. 학생수가 20명 남짓에서 100명 이내의 주말 한글학교들이다. 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우리말과 얼을 가르치겠다는 봉사의 일념으로 교단에 서고 있다. 그렇기에 체계적으로 교수법을 배우는 이번 연수는 가뭇의

단비처럼 반갑기만 하다.

8일에는 분임토의로 '한글학교 수업과 운영사례' 발표가 열렸다. 적게는 3~4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온 베테랑이라 발표 사례마다 다양한 노하우가 공개됐다. 참가 교사들은 메모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질문을 하는 등 활발한 토론도 전개됐다.

카메룬에서 온 이현옥 교사는 "이번 연수에 참가한 학교들의 운영사례집이 배포됐는데 참고할 것이 무척 많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교사들의 열정은 똑 같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시키고 학교의 재정 자립을 키우는 방법에서 생각도 못했던 힌트를 얻게 됐다"며 기뻐했다.

참가자들은 10일까지 교수법과 학교 경영, 한류, 청소년 심리지도, 웹기반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문화예술매개과정 등 다양한 수업을 들었다. 낮에는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부족했던 부분을 배우고 저녁에는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학교 운영과 수업에 관한 노하우를 교류했다.

전체토의 시간에 참가자들은 한글학교 교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한글학교 운영 노하우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재정부족을 겪는 한글학교들이 거주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한 효율적 사례와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엑스포 성공은 큰 자부심”

참가자들은 12일부터 13일까지 여수 엑스포와 순천만 일대 등 남도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했다. 12일은 엑스포 폐막일이기도 해서 축제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방문해 교사들은 뜨거운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에경 앵커리지 한글학교 교장은 “전라남도 끝의 자그만 항구

도시 여수가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존재감을 알린 것은 큰 보람”이라며 “웅장한 시설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엑스포는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임을 입증해준 쾌거”라고 자랑스러워했다.

13일에는 세계 5대 습지로 알려진 순천만의 갈대숲을 둘러보았다. 교사들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이제 우리도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가난을 벗어났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감탄해했다.

14일에는 폐회식을 앞두고 세계한글학교협의회 2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최정인 미주한국학교연합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각 대륙별 협의회로 구성된 세계한글학교협의회는 한글학교 교재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재지원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글학교 교사들은 소감 발표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글학교를 지켜온 교사들에게 이번 연수는 큰 격려가 됐고 새로운 자극이 됐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한글학교는 대부분 현지 학교나 교회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려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들의 십시일반도 중요하나 모국의 지원도 절실하다”며 다양한 후원을 요청했다.

과테말라 한글학교에서 온 강미경, 김희경, 홍영옥 교사는 “교사를 비롯한 임직원의 열정 덕분에 한인사회에서 한글학교는 자녀교육의 필수가 됐다”며 “장소의 문제로 정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 한글학교에 들어오려고 대기자가 있을 정도”라고 뿌듯해했다.

벨라루스의 민스크 고려인협회 한글학교 교사인 양지영 씨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현지인을 비롯해 고려인 학생이 늘어났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어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장**



경기창작센터에서 개최한 문화예술매개과정들을 통해 교사들은 문화와 예술을 한국에 접목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체험 시간을 가졌다(사진 좌측). 한글학교 교사들은 12일 여수 엑스포 폐막식에 참가해 조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자부심을 느꼈다(사진 중앙). 순천만 갈대밭을 둘러보며 생태 습지 보존 상태를 견학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사진 우측).

“조선족 정규학교 설립이 목표”

김영란 상하이 조선족 한글교사



2010년 10월 중국 상하이에 조선족 주말 한글학교가 문을 열었다. 동북 3성 이외의 지역에는 조선족 학교가 거의 없는 탓에 한국어를 거의 접하지 못하는 조선족 자녀를 위한 것이다.

김영란 상하이 한글학교 교사는 “동북 3성 이외의 지역에 사는 3세 중에서는 나 정도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면서 “아이들은 대부분 한족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집이나 학교에서도 한국말을 접하기 어려운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수요가 많아지면 정규 조선족 학교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주말학교는 그를 위한 밑거름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에 사는 조선족 아이들의 대부분이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 아이들에게 우리말, 우리글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부모들의 열망으로 한글학교가 만들어졌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 채택 위해 노력”

이애경 앵커리지 한글학교 교장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한글학교의 이애경 교장은 한인들이 주류사회 정치에도 적극 나서서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한국어의 제2외국어 채택을 강조했다.

앵커리지에는 4천500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 한글학교에는 9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8명의 교사가 유아반, 초중고반, 성인반으로 나눠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 교장은 “학생들이 졸업 후 본토로 유학을 가서 한인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우리말을 제대로 배운 덕분이라고 감사해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한글학교가 세입자에서 벗어나 자기 건물을 갖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와 모국의 지원을 호소했다.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처럼 한국어도 정규학교의 제2외국어로 채택되어야 한다. 한글학교를 비롯해 한인사회가 합심해서 채택이 되도록 힘쓰겠다.”

“한류 열풍... 현지인의 한국어 배우기 확산”

허명희 일본 좋아좋아 한글학교 교장



다”며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문화도 함께 알려서 진정한 한·일 우호관계가 형성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들은 전부 성인들로 40대 이상이다. 한류 드라마의 영향 덕분이다. 그는 한국어 강습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에 입학해 사이버로 한국어언어문화학을 전공하고 있다.

허 교장은 “얼마 전부터 미야기현 민단본부에서 한국어 강좌를 열고 있는데 지방 단장을 비롯해 민간 간부도 수업을 듣는다. 최근 한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늦게라도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포들이 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일본 미야기현의 리후초에서 1998년부터 ‘좋아좋아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허명희 교장은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

“한국인이라면 어디에 살든 한글 알아야죠”

이현옥 카메룬 한글학교 교사



‘초미니 한글학교’다. 이 씨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제 아이들도 그렇고 이곳에 사는 한인 아이들이 대부분 현지에서 태어나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학한다. 굳이 따지자면 한글을 배워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르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재외동포재단의 사이버 연수와 사이버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인터넷을 뒤져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참]**

“학생 수는 적어도 한글 배움의 열기는 큰 학교 못지않다.”

이현옥(35·여) 씨가 몸담은 카메룬 두 알라 한글학교는 학생 수가 12명에 불과한

연수 소감

“한 여름 무더위를 열정으로 이겨냈다”

정한진 뉴질랜드 웰링턴 한글학교 교감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그 상상을 초월했던 한국에서의 더위가 다시금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건... 어쩌면 7박8일간의 연수가 내 기억 속에서 숨 막혔던 8월의 더위를 한여름의 정열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전 세계 50여 개국 약 200여 명의 한글학교 교사가 참가한 이번 연수는 첫째 날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낮선 기운을 풀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갔다.

강의는 크게 오전 공통 강의와 오후 분과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분과 강의는 문법, 읽기, 어휘, 학교경영, 쓰기, 말하기, 문화, 문학 등으로 세분화되어 각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획일화된 강의 형태에서 벗어난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내가 선택한 수업은 읽기, 문법, 문화 교육이었는데 강의도 좋았지만 졸업 후 근 14년 만에 대학 강의실을 찾아가며 수강하고 있자니 다시 대학생이 된 것처럼 설레고 즐거웠다.

연수 기간 중의 문화 체험도 내게 강의 못지않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실례로 경기문화재단 창작센터에서 진행된 문화

예술매개자 과정은 문화와 예술을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해준 의외의 수확이었다.

‘Man of La Mancha’ 뮤지컬 공연은 그야말로 앙코르가 절로 나오는 감동이었으며, 여수의 밤을 수놓은 엑스포 폐막식 불꽃놀이 사진으로 담기에 역부족인 장관이었다. 순천만 생태공원에서의 기분 좋게 나른한 아침 산책, 이두현 밴드와 함께한 미니 콘서트...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쩌면 무덤덤했을 행사들은 어느새 이민 10년차인 내겐 꿈같은 경험이었다.

동포재단 측의 행사 준비와 배려는 부족함이 없었다. 진행요원들은 연수 기간 내내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분주히 움직여주었다.

사실 이번 연수가 내게 큰 의미가 된 것은 훌륭한 강의,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생님들과 함께 올림픽 축구 한일전을 응원하며 ‘대한민국’을 외쳐댔던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선생님들은 외국에서 비슷한 애환을 안고 살아가는 한민족 동포였다. 함께 수업을 받으며,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었던 얘기들은 10년간의 내 이민생활을 다른 방면에서 돌아보게 해주었다.

적어도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사명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수는 내게 뜻 깊은 시간이었다. **[참]**



“나의 뿌리 대한민국 느끼고 배웠어요”

2012년 멕시코 한인후손 모국체험 연수

멕시코 사랑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1905년 태평양을 건너 이민을 떠난 한인 1천33명의 후손이 뿌리를 찾아 방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8월 7일부터 1주일 동안 멕시코 한인 후손 33명을 초청해 모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15~30세의 한인 3·4세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방한 기간에 서울, 경북 경주, 울산 등지를 돌며 고국의 발전상을 견학하고 선조의 이민사를 배웠다.

국내 대학생들과 함께 홈스테이를 하며 모국의 푸근한 정을 느끼는 기회도 마련됐다.

김경근 동포재단 이사장은 “멕시코 한인후손 모국연수는 당초 직업연수로 시행했으나 많은 동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모국체험 연수로 전환했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체험하고, 자긍심을 갖고 더욱 더 의욕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멕시코 한인 후손들이 현지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로 정

착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2명을 국내에 초청해 직업연수를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모국체험 연수로 전환했다.

“모국의 모습 자랑스러워”

일본과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7개월 전인 1905년 4월 4일 인천 제물포항. 1천33명의 한국인이 영국 상선 일포드호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는 이름도 생소한 나라 멕시코. 에네켄(용

설란의 일종)농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가족·친지와 함께 이민 길에 나선 이들이었다. 퇴역군인, 농부, 몰락한 양반 등 출신도 다양했다. 당시 가난과 제국주의 침탈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파격적인 대우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이민을 결행했다.

한 달여의 항해 끝에 배는 멕시코 남단 살리나 크루스 항구에 닿았다. 또 다시 열흘 정도 기차와 배를 더 탄 뒤 5월 15일 유카탄 반도의 도시 메리다에 도착했다. 중남미 지역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한국인이었다. 100여 년 멕시코 한인 역사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들은 새벽 4시부터 해질녘까지 노예와 다름없는 농장생활을 하며 묵묵히 이민생활을 견뎌냈다.

8월 8일 신정환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들려준 ‘멕시코 한인 이민사’를 들으며 33명의 멕시코 한인 후손들은 몰랐던 선조의 역사에 놀라워하면서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점에 크게 고무됐다.

강의 중에 신 교수가 보여준 이민 선조들의 사진에서 5대조 할머니 사진을 발견한 엘윈 박 사바라는 반갑고 신기해했다.



3



4

참가자들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의 태권도 도장에서 문화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태권도를 배웠다. 박철웅 국기원 외국인 지도사범의 지도를 받아 준비 자세에서 정권지르기, 발차기 등을 따라하며 한인 후손들은 즐거워했다. 올림픽 등을 통해 태권도를 알았지만 그게 한국의 전통 운동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이들은 서툰 우리말로 “태~권~도”를 외치며 한 동작 한 동작을 배웠다.

9일에는 스페인어가 가능한 한국인 자원봉사자와 짝을 이뤄 서울 탐방을 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한국 민주정치의 현장도 살펴보고 아직도 남북 분단의 아픈 현실을 간직하고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도 견학했다. 한인 후손들은 명동과 남산 한옥마을, 인사동을 둘러보며 전통과 유행의 첨단이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기도 했다.

9일 저녁에는 특별한 만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국 가정에서 일일 홈스테이를 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박범용 씨 집을 찾아간 아브라함 박 딘과 루이스다니엘 메디나 김은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와 한상 가득 차려낸 저녁을 먹으며 모국의 푸근한 정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산업기술 발전상 뿌듯”

10일에는 모국 산업시찰에 나섰다. 울산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한국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를 견학했다. 용광로에서 쏟아진 쇠물이 제련을 통해 강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뜨거운 열기도 있고 열심히 살펴보았다. 후손들은 한결같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모국의 기업이 세계 일류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동포재단은 이전의 멕시코 한인 모국 직업연수를 통해 졸업생을 포스코의 멕시코 법인에 취업시키기도 했다.

11일에는 경주의 불국사와 첨성대, 석굴암 등 문화유산을 체험했다. 에두아르도 산체스 김 사라비아는 “불교문화는 낯설지만 고대부터 훌륭한 문화유산을 쌓아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신기한 듯 불국사 경내를 둘러보았다.

참가자들은 밤에 첨성대 일대의 야경을 둘러보며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의 매력을 느꼈다.

에두아르도 산체스 김 사라비아는 “연수기간 동안 다양한 한식을 맛봤는데 그 중 제일은 ‘불고기’”라며 “우리 가족은 멕시코에서 불고기를 지금도 해 먹는데 본 고장의 맛을 본 걸 가족에게 자랑할 생각”이라고 즐거워했다.

참가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멕시코에 퍼지고 있는 케이팝(K-POP)을 잘 알고 있는 듯 거리에서 버스에서 한국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 나오면 흥겹게 따라 부르곤 했다.

제나로 미구엘 만사니야 김은 “태권도를 배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코리아’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가 됐다. 돌아가면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

- 1 재외동포재단은 8월 7일부터 13일까지 멕시코 한인후손 33명을 초청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펼쳤다.
- 2 신정환 한국외대 교수의 ‘멕시코 한인 이민사’ 강의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3 경주를 방문한 멕시코 한인 후손들은 첨성대 일대를 걸으며 경주의 야경을 둘러보았다.
- 4 참가자들은 모국 체험의 일환으로 일일 홈스테이를 했다. 아브라함 박 딘과 루이스다니엘 메디나 김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박범용 씨 집에서 따뜻한 모국의 정을 느꼈다.



“선수들의 땀·눈물·도전 영원히 기억”

이명박 대통령, 런던 올림픽 종합 5위 선수단 격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큰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면서 8월 16일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와 감독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인내하며 고통을 견뎌왔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지만, 그 꿈을 못다 이룬 선수들도 있다”면서 “국민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 영광의 도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영만찬 행사는 선수단 성과보고와 현지 하이라이트 동영상 감상, 선수들의 토크쇼, 축하공연 등 선수단 전원이 편안히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이 대통령은 투혼을 불살라 세계 5위의 성적을 일궈낸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선수들은 국민의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감격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런던에서 뛰는 동안 생방송을 보기 위해 사실 거의 밤을 새웠다”면서 “특히 국민의 코끝을 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 올림픽에 참가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했다. 여자 양궁 2관왕에 빛나는 기보배는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 이제 금메달 만개 실감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4강전에서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이기고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을 딴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은 “이런 자리에 참석하기 쉽지 않은데 축구에서 동메달을 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고도 투혼의 금메달을 따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긴 레슬링의 김현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신다”며 “국민들이 늦은 새벽까지 저의 시합을 보면서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홍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 및 지원단, 종목 단체장,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1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8월 16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에서 축구,사격 대표팀 선수 등과 함께 파이팅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2 이 대통령 내외가 런던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에서 홍명보 축구감독, 최현주 양궁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3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기보배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에서 소녀시대의 노래와 춤을 ‘활쓰는 자세’로 따라해 보이고 있다.



“독도는 진정한 우리 영토, 목숨 바쳐 지켜야”

처음 독도 땅 밟은 대통령 ‘우리영토’ 확인

2012년 8월 10일 오후 2시. 헬기 편으로 독도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대통령은 독도에서 1시간 이상 머물며 ‘독도 지킴이’ 들을 만나 격려하고 섬을 둘러보며 이곳이 우리영토임을 확인했다.

독도경비대원이 힘찬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로 맞이하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독도경비대 체육관에서 윤장수 경비대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등을 소개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경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남단은 마라도, 서해에는 백령도가 가장 끝”이라면서 “동해 동단에 있는 게 독도인데 동단(東端)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잘해 달라”면서 “독도는 자연 그대로 잘 지켜야 한다. 경비도 해야 하지만 환경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실과 대원들이 생활하는 내무반과 초소 등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강

조했다.

또 흰색으로 ‘韓國領(한국령)’ 이라고 쓰인 바위에 올라 글씨를 직접 만져보고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재차 확인했다.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영령을 위해 세운 순직비에도 헌화하고 잠시 묵념하면서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또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김신열 부부를 만나 반갑게 포옹하고 ‘민간 지킴이’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날 역사적인 방문인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 문인인 김주영 이문열 소설가도 동행했다. 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청와대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 이달근 정무수석비서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비서관, 박정하 대변인, 이길호 온라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84.7%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

1 8월 10일 오후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형 태극기가 새겨진 조형물을 만져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령(韓國領)’ 이라고 새겨진 암반비석을 만져보고 있다.



서울 동대부속여고에서 강연에 나선 김봉섭 동포재단 조사연구팀장은 재외동포의 현황과 유래를 소개하며 학생들 가까이에 동포의 존재가 있음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재외동포와 우리는 하나” 전국 16개 고교 순회교육

재외동포재단 ‘찾아가는 동포 이해교육’ 시작

재외동포재단은 8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울산·경기·경북·전남·전북·제주 지역의 16개 고교와 함께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 직원들이 강사로 직접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고등학생들에게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갖도록 하고, 720만 재외동포사회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고교생 대상 현장 방문 교육’인 이번 사업에는 8월 동대부속여고(서울) 포천고(경기) 전주여고(전북), 9월 서라벌고(서울) 광양고(전남) 목포여고(전남) 풍문여고(서울), 10월 서해고(경기) 울산중앙여고(울산) 대부고(경

기) 명덕외고(서울) 대정여고(제주), 11월 대영고(경북) 신일고(서울), 12월 저동고(경기) 경동고(서울) 등이 참여하며, 교육인원은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연의 주된 내용은 재외동포의 현황 및 동포사회의 과거·현재·미래의 변화 추이와 동포재단의 사업에 대한 소개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 재외동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향후 재외동포사회와 학교 현장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8촌 이내에 재외동포 있다” 18%

이해교육의 첫 번 강사로 나선 김봉섭 조사연구팀장은 8월 22일 동대부속여고 300여 명에게 “재외동포는 남북한을 포함해 한 민족 10분의 1에 해당하는 720만 명”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촌 이내에 재외동포가 있다고 18%가 답했을 정도로 우리는 재외동포와 떼어 수 없는 관계 속에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팀장은 “재외동포란 해외에 사는 우리 한민족, 우리 국적 보유자 또는 우리 혈통이 연결된 사람들”이라며 미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와 CIS지역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의 역



사를 쉽게 풀어서 알려줬다.

동포들 모국사랑의 역사 소개

8월 24일 경기도 포천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에 나선 한광수 교류사업팀장은 “굴나무 묘목을 들여와 제주도에 감귤 농사를 전파해준 것이 재일동포”라며 “88 서울 올림픽 성공을 위해 재일동포를 비롯해 많은 동포들이 성금을 모국에 보냈으며, 멀리 일제 강점기에는 멕시코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적은 급여를 떼어내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내는 등 재외동포의 모국 사랑 역사는 이민의 역사만큼 오래됐다”고 동포의 모국 기여에 대해 밝혔다.

학생들은 단어조차 생소한 재외동포에 낯설어 했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동포들이 많이 있고 놀라운 활약을 통해 코리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메모를 하는 등 강연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 세계는 동시공간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며 “학생들이 재외동포의 많은 장점을 인식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돕는 것이 강연의 취지”라고 말했다.

엄경식 동대부속여고 창의체험활동 부장은 “학생 중에는 방학을 이용해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하고 친척 중에 재외동포가 있



동대부속여고 학생들은 생소한 재외동포가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실에 놀라워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한광수 동포재단 교류지원팀장은 경기도 포천의 호천고등학교 학생들을 찾아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을 했다.

는 사람도 많다”며 “지구촌 한가족이라고 할 만큼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소양교육으로 재외동포를 알 필요가 있어 강연을 요청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엄 부장은 “재외동포가 이민 2, 3세로 넘어가면서 정치인을 비롯해 법관, 교육감 등 전문적인 실력을 쌓아서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많은 자극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유학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다”고 말했다.

강연을 들은 동대부속여고 1학년 이수민 학생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어렵듯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해외에 살고 있는지 몰랐다”며 “같은 한민족인데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에 앞으로는 관심을 가질 생각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같이 강연을 들은 1학년 김현재 학생은 “고려인과 재일동포 이야기를 듣고 해외 이주에 아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해외에 살지만 사연이 제각각인 재외동포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창**

한인 여성 리더들 기후변화 대책 모색

201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여수서 개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초청으로 3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참가자 초청 다과회에서 김 여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8월 29일 오전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회식에서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여성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렸다.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여수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한민족 여성'이라는 주제 아래 33개국 217명의 해외 한인 여성을 비롯한 470여 명의 여성이 참가했다.

해외 참가자 중에는 정미령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김명남 프랑스 베르사유 미술대학 관화학과 종신학과장, 박향현 미국 LA 검찰청 검사, 이현선 중국 교통은행 지점장 등이 포함됐다.

29일 오전 열린 개회식에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충석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연숙 전 정부 제2장관이 '글로벌 한민족 여성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금래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세계 각국 한민족 여성들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인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슬로 라이프', 안전한 먹거리 '로컬 푸드', 아름다운 소비 '굿 네이버', 친환경 기업활동 '그린 마케팅' 등 여러 키워드별로 팀을 나눠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박인실 전남대 교수는 "여성은 한 가정의 삶이 추구하는 소비 방식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여서 여성의 인식 변화가 최종적으로는 '슬로 라이프'를 완성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한인여성회의 김은희 회장은 개인 머그컵 사용, 음식물 쓰레기 거름 만들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등 여성회에서 실천하는 녹색 생활법을 소개했다.

룩셈부르크에서 온 이벤트매니지먼트의 박미희 대표는 룩셈부르크 국제 바자와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와인 생산자가 고안한 '선불방식 소비'를 좋은 소비의 사례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스페인 한방침술병원의 백영자 원장은 효율적인 물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캐나다 'Can-Ko 헬스'의 이인순 대표는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다.

30일에는 교육, 경제·경영, 과학·기술·의료, 문화·예술, 언론·정치·법률 등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여성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31일 서울로 이동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창**



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온 이 발레리아 선생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며 '편지쓰기'에 대해 발표했다.

“편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편지, 안부편지, 연애편지, 위문편지...” 이 선생은 수업 전에 가요를 트는 등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강의에 빠져들게 했다. 서툰 한국어지만 편지의 종류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영상자료를 곁들인 다채로운 수업이었다.

연수기간 동안 교사들은 한국어 실력에 따라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서 한국어 학습 및 교수법 강의를 들었다. 중급반에서는 문장론, 한글수업의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이어지고 있었다. 연수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목표했던 진도

이 큰 수확”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나 중급과정 선생들의 한국어 발음은 고려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눈치 채기 힘들 정도로 한국인과 비슷했다.

“다들 10년 넘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점점 늘어났다. 말은 쓸수록 느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러시아에서 온 조 엘레나 씨가 말했다.

고려인 교사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CIS 지역에서는 교사 월급이 매우 적어서 남성이 하는 직업으로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한다.

CIS 한국어교사들은 일주일에 이들은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도 했다. 우리춤 배우기, 한국음식 만들기, 종이접기, 민요 배우기 등



CIS지역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참여한 카자흐스탄에서 온 이 발레리아 교사가 '편지쓰기'란 제목의 학습교안을 가지고 초청 교사들이 모의수업을 펼치고 있다.



CIS지역에서 참가한 교사들이 모국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여수 엑스포를 견학했다. 참가 교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에 감탄하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포사회, 뿌리찾기 광복절 행사 풍성

한인 2세에게 광복의 의미 알리다



▲ 미국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는 8월 15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소재 페어팩스 컨트리클럽에서 200여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8월 14일 열린 제67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현지 한인후손들과 한글학교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가 67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인회 등 한인단체를 중심으로 1세대들에게는 광복의 감격을 되새기고 2세대들에게는 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동포들은 현지시간으로 광복절 당일 샌피드로에 있는 우정의 종각에 모여 기념 타종 행사를 갖고 1.5세와 2세는 물론 현지인들에게 광복절의 의미를 전달했다.

메릴랜드한인회는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어 항일투사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며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저항시와 글들을 낭송하는 '시인의 밤' 과 지역원로들로부터 광복의 역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장두석 메릴랜드 한인회장은 "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해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달라고 권유했다"면서 "올해는 한인 2세대들이 광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자료를 특별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뉴저지주 한인상록회는 주말인 18일 오후 잉글우드 드라이브모로고에서 광복절을 기념하고 한인 2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기금 모금 콘서트를 개최했다.

캐나다 토론토한인회는 15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함께 조이풀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기념 공연을 펼쳤다.

매니토바한인회는 18일까지 이어진 소수민족 문화축제인 '포클로라마'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렸으며, 몬트리올한인회는 기념식을 주말인 18일로 옮겨 햄스테드파크에서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의 아픔이 담긴 '동토의 땅' 사할린의 한인들은 광복절 콘서트와 체육행사로 이뤄진 기념행사를 18일에 열었다.

재일동포 사회는 광복절을 맞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기념식을 가졌다.

도쿄와 카나가와, 토치기, 니가타, 미야기, 홋카이도, 아오모리, 야마가타,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 등 민단지부는 본부 회관이나 한국회관 등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재중국 한국인들은 베이징을 비롯해 칭다오, 상하이, 시안, 광저우, 선양 등 중국내 한국 공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1905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려고 멕시코로 건너간 한인 1천 33명, 이른바 '애니깁'의 후손이 사는 멕시코에서는 14일 한인 후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사물놀이와 합창, 전통 혼례식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미수교국인 쿠바에서는 12일 아바나에서 한인협의회 등이 나서서 지난해에 이어 뜻깊은 광복절 행사를 개최했다. **창**

지역사회에 한국어 봉사로 위상 높인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글학교

독 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알자스 지방의 아름다운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1999년 설립된 '스트라스부르 한글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학생 40명, 교사 8명으로 프랑스 내 한글학교로서 파리를 제외하고 두 번째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정식 사립 초등학교를 빌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정규 수업과 4시~4시 30분 특별 활동을 한다. 비단 한인 차세대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프랑스인들에게도 한글 및 한국어 문화 홍보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스트라스부르 한글학교다.

이미영 교장은 "한인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차세대 육성"이라며 "설맞이 문화수업, 추석맞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종강 행사 등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한인 및 현지인도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인 숫자가 적은 지역의 한글학교 특성상 자녀들이 우리말을 배워도 실제로 쓸 기회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자칫 주중에 정규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치진 자녀들이 주말에는 별로 쓸 일도 없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학교에 나오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 한글학교는 수업에 유희적인 측면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숫자를 배울 때는 옷 놀이나 제기차기 등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전래동화를 배울 때는 연극을 도입한다.

기업의 지상사 등 파견으로 직원 자녀와 이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교육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장의 주장이다. 그는 "모국에서 지원해주는 대부분의 교재가 파견 직원 자녀에 맞추어져 있다. 현지 정착한 가정의 자녀는 이민 2세대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한국어는 유사 외국어라고 시각에서 학습교재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트라스부르 한글학교는 지역사회에 학교를 알리는 홍보에 적극적이다. 학교 로고도 만들어 공문서에도 넣어서 보낸다. 이 교장은 "한국어 수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찾아가는 학교를 지향한다"며 "지역사회에도 공헌하는 학교로 위상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희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수업을 진행한다.(우)

지역사회 기여의 일환으로 2010년 6월부터 스트라스부르 유람선에 한국어 안내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왔다. (아래)

실제로 스트라스부르 한글학교는 2010년 6월부터 지역의 공공 유람선에 한국어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녹음을 지원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음악 페스티벌의 한국어 통역 지원을 비롯해 관광안내소에 한국어 가이드북을 제작해 비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한국어를 통한 봉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교장은 "9월부터는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에 한국문화강좌를 한국교육원이 한글학교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강좌를 점차 늘려서 학교에 제3외국어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카자흐 역도 금메달 넷 일등 공신은 고려인 감독

이 알렉세이 국가대표 감독, 런던올림픽서 기염



‘일리야 일린’, ‘스베플라나 뽀도베도바’, ‘줄피야 친산로’, ‘마야 마네자’

이들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카자흐스탄에 금메달을 안겨준 역도선수들이다. 카자흐스탄은 남자 8체급, 여자 7체급 합해 15개의 금메달이 걸린 역도에서 무려 4개를 휩쓸었다. 거의 1/3을 가져간 셈이다. 이들의 선전 덕분에 카자흐스탄은 최종 금메달 7개로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와 권투에서 각각 금메달 1개를 획득하여 종합 29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다. 특히, ‘세계 최강’ 중국 역도의 아성을 위협했다.

이런 카자흐스탄의 돌풍 뒤에는 1994년부터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고려인 3세 이 알렉세이(51)가 있다. 또 그를 뒷받침하는 박 빌로리를 비롯한 고려인 코칭스태프의 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 감독의 경우 카자흐스탄 국민들로부터 메달리

스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스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8월 7일 카자흐스탄 국영 TV방송 ‘카자흐스탄’ 인터뷰에서 그는 “그동안 15명의 챔피언을 길러냈다”면서 “젊은 트레이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자신의 말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 현지 체육계 관계자와 국민들로부터 ‘쉬지 말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감독은 항일독립투사 홍범도 장군과 계봉우 선생이 묻혀 있는 카자흐스탄의 끄즐오르다 주의 ‘샤간’이라는 마을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아버지 이 겐나지 씨와 수학교사였던 어머니 채 가리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역도를 시작한 그는 남자 67.5kg급 카자흐스탄 챔피언에 올랐다. 잠블국립대학교 토목과를 나온 그는 1984년 잠블체고의 역도 코치를 시작으로 30년 가까운 역도 지도자로서의 인생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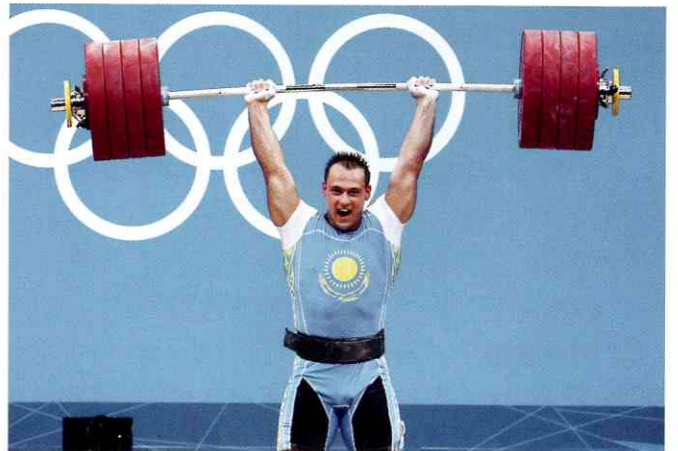
이후 그는 86년 알마티의 브레베스닉체고 역도 코치, 90년 주니어 역도 대표팀의 코치, 1994년에는 대표팀 감독에 부임하였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그 공로는 그는 카자흐스탄 국가 훈장인 ‘쿠르멧’ 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훈련은 엄하게 시키지만 선수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배려심과 온정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불운이 겹쳐 메달획득에 실패했던 스베플라나 선수를 재기시켜 런던 올림픽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게 했다. **창**

김상욱 =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상무위원



여자 역도 63kg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마야 마네자’ 선수와 감격의 포옹을 하고 있는 이 알렉세이 감독(사진 우측)



이 감독의 지도를 받은 일리아 일린은 남자 94kg급 이하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실패 경험 없이 성공한 한인은 없습니다”

재미 변호사 이채영, 성공 한인 소개집 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건 전반의 정책을 만든 고경주 미국 보건부 차관보,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를 만든 로봇공학자 데니스 흥,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부의장 등 미국 내에서 활동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성공한 재미 한인 9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 ‘꿈을 이뤄드립니다’ (달 펴냄)가 최근 출간됐다. 쉽지 않은 인터뷰 과정을 거쳐 이들의 성공담을 한데 모아낸 이는 역시 재미 한인 변호사인 이채영(34·여) 씨.

이 씨는 지난 2010년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차세대리더들을 만났다.

그는 “차세대대회에서 만난 참가자들과 꾸준히 연락을 하면

서 교류를 했다. 덕분에 이번에 책을 쓸 때 인터뷰어를 추천 받기도 하고 또 만남을 주선해주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 주류 사회 곳곳에 차세대들이 포진해 있어서 앞으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고 소개했다.

현재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 씨는 책을 쓰면서 이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공담’이 아닌 ‘실패담’이었다. 이 씨는 “보통 성공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그 과정의 실패와 좌절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도 빨리 그 위치에 가려고만 한다. 인터뷰해보니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 동양인이 드물고 인종차별이 심하던 1950년대에 나고 자란 고경주 차관보는 무엇을 하든 자신이 동양인 최초, 한국인 최초라 좋았다고 했다. 소수민으로 산 경험이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며 모두 한국인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면 경험을 쌓아라”

재미 변호사 주디 장, 성공 이민 가이드 출간



아메리칸 드림을 막연히 꿈꾸었던 지난 세대와는 달리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도 타국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아픔과 좌절을 겪는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혹은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낙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배 이민세대인 주디 장 변호사가 ‘경험이 너를 만든다’ (이른아침 펴냄)를 출간해 따뜻한 조언과 안내를 펼치고 있다.

이 책은 실제로 이민 생활을 겪은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며, 동시에 어떻게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했

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말한다.

그는 “삶에는 끝이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 이민은 어찌면 더 나은 목표를 향한 결정이었지만 또한 더 큰 외로움을 껴안아야 하는 스스로의 선택일 수 있다”며 이러한 이민 생활의 안타까운 고민과 사연들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제시한다.

그는 “자신의 정착 경험과 이민 관련 법률 조언을 해 오면서 알게 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많은 사람들이 좌절로부터 딛고 일어나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말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추천사에서 “이민자들은 합법 체류자격 획득, 자녀 교육, 그리고 집 장만이라는 세 가지 꿈이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는지 생생한 노하우가 담긴 책”이라고 소개했다. **장**

세계한인회장,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장학금 기부

전 세계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리더인 한인회장들은 8월 17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에 장학금 1천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들이 기부한 장학금은 학생들의 교과 학습 등 교육활동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은 재외동포재단이 지난 6월 26일부터 나흘간 서울 웨라톤 위커툐 호텔에서 개최한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인회장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이며,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의 기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인회장들은 2007 세계한인회장대회 때부터 모국의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2천50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 측에 전달해왔다.

한편,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전 국회의원)가 설립한 물망초학교는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수업료, 의식주 등



물망초학교는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수업료, 의식주 등 일체의 경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숙학교로 경기도 여주에서 개교할 예정이다.

일체의 경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숙학교로 내달 하순 경기도 여주에서 개교할 예정이며 학생 수는 20여 명이다.

재단 기획이사, 2012년도 선양 한국주 행사 참석



김정수 동포재단 기획이사는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주 행사에 참석해 동포들을 격려했다.

동포재단 김정수 기획이사는 8월 24(금)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선양과 단둥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첫 방문지인 선양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60주년 기념회 행사에 참석하고 행사를 주관한 선양한국인회와 선양시인민정부에 축하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중국 선양 한국주 행사는 2002년부터 문화, 체육,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재중 선양 동포들을 위로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현지 중국인과의 교류를 확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어 방문한 단둥에서는 올해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에 개관한 단둥한인회관 건립 현황 점검 및 단둥지역 한인사회 현안 사항 등을 파악하고 왔다.

이러한 방문한 단둥에서는 올해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에 개관한 단둥한인회관 건립 현황 점검 및 단둥지역 한인사회 현안 사항 등을 파악하고 왔다.

중국 단둥 한인회 새 동지 마련

제67주년 광복절인 8월 15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인사회에는 경사가 있었다. 2천여 단둥 교민의 숙원인 한인회관이 1년 가까운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문을 연 것이다.

연면적 54㎡의 좁은 공간이지만 제 사무실 한 칸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 이곳에 등지를 틀게 된 단둥한국인회와 한국문화원, 한글학교에는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단둥 한인들은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인회관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이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한인들도 십시일반으로 1억 원이 넘는 공사비용을 마련했다. 동포사회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활성화를 위한 회관 건립을 지원해온 재외동포재단도 힘을 보탰다.



8월 1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열린 한인회관 개관식에서 한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1박2일' 출연 시청률 1위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에 참가한 일부 참가자들이 KBS 방송 프로그램인 '1박2일'에 출연해 독도 탐방을 하면서 4개월 만에 일요 저녁 예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시청률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8월 19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은 전국기준 18.7%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예능 코너 1위에 올랐다. '1박2일'이 코너 시청률 1위를 다시 찾은 것은 KBS 파업 여파로 방송 파행이 진행된 4월 중하순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방송된 재외동포특집도 큰 몫을 해냈다. 재외동포특집이 찾아간 곳이 독도였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간 마찰이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쏠릴 법했다.

'1박2일'의 독도행은 갑작스레 준비된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특집을 계획한 3개월 전에 독도행이 결정됐다. 광복절 전후 방송을 계획하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

당초 '1박2일'은 재외동포특집을 준비하면서 독도행을 고려하지 않았다. 제작진이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곳은 안동. 한국의 미와 정서가 살아있는 곳을 찾아가려 생각했다. 이런 계획이 재외동포의 제안으로 인해 독도로 급히 변경됐다. 재외동포를 인터뷰하는 가운데 "독도를 가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당초 다른 곳을 여행지로 생각하고 준비했다"며 "한 재외동포와 인터뷰를 하며 계획이 바뀌었다"며 "이 동포가 '독도에 꼭 가보고 싶다'고 독도행을 제안했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포조차도 독도를 잊지 못하고 독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점이 감동스러웠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했다"고 말했다.

'1박2일'의 독도행은 방송 내용이나 화제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출연한 재외동포 청년들이 정체성을 찾는 내용이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독도여행을 마친 1박2일'은 방송에서 동시간 코너 1위에 오르며 국민예능 부활 신호탄을 쏘 올렸다. **▶**



KBS 예능프로인 '1박2일'에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에 참가한 동포 학생 7명이 참여해 '독도탐방'을 했다.

글뤽 아우푸

서미라(독일) 시부문 대상



땅 아래 굴속에는 또 하나의 밤하늘
 몸이 까맣게 타들어 갈 때
 비로써 빛이 만들어지는 공장
 숨 막히는 운명을 지고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가
 자신의 몸을 깨고 부수어 별을 만드는
 땅 아래 밤하늘이 그들의 막장이다
 회색 광산이 부서지며 날카롭게 울부짖고 나면
 검은 돌파편에 맞아 실려 나온 부상자들
 갱으로 들어가기 전 아침 햇살 한 가닥씩 나눠서 주고
 서로에게 “글뤽 아우푸”라고 행운을 빌 때면
 본국인도 외국인도 오직 한마음 되는
 검은 얼굴들
 붉게 지는 해도 가려진 뿌연 회색 하늘 아래서
 옆에 있던 동료들 확인하며 하얀 이 드러내던 미소
 거품 넘치는 맥주 한 잔씩 들이켜며
 몸속에 먼지 씻어내던 그들

거의 50년이 흘렀다
 전기기술자로 퇴직한 최 씨도
 식당을 운영하던 고 씨도
 작은 한인교회를 세운 조 목사도
 노동절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는다
 울컥울컥 넘어오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마른기침을 토해내는 긴 밤이 될 것이다

*글뤽 아우푸 : 광부들의 인사말, 행운을 빈다는 뜻





‘주류 시민’으로 성장한 호주 한인사회

한 국전쟁의 참화가 채 가지지도 않은 1957년 어느 날 한 한국인이 호주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받았다. 그가 누군지, 어떤 경로를 거쳐 호주에 도착했는지, 왜 그곳에서 정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호주 정부가 발행하는 당해 연도 연감에 ‘코리아인(Korean)이 시민권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50년 후 호주 한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다만 전쟁 고아나 국제결혼자일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호주한인신문은 그가 경상북도 대구 출신의 곽묘임 씨라고 소개해 이민사 초기를 연구하는 단초가 밝혀졌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호주 한인 이민은 올해로 55년이 됐다. 현재 시드니에만 5만여 명의 한인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어 정착해 있다. 여기에 영어를 익히기 위해 어학연수 중인 학생이나 시드니지역 대학,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한인 5만여 명을 포함해 모두 10만여 명이 세계 3대 미항 가운데 한 곳인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다.

1950년대 말에는 6.25 전쟁의 참화를 피해 유학생과 대학 교수 등 고급인력이 주로 이민을 왔다. 이런 추세는 196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70년대에는 기술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호주의 이민 확대 정책에 따라 기술을 가진 한인들이 호주땅을 밟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의 조기유학과 어학연수

붐이 일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호주를 찾고 있다.

호주는 한국과 시차가 불과 1~2시간인 데다 최근 국내 항공사들이 호주 3곳에 직항로를 개설한 이후 많은 유학생과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이민 초기만 하더라도 호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멀기만 한 땅이었다. 그래서 이민 초기 한인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를 거쳐 호주로 흘러들어가는 게 예사였다.

그 이후 한국 정부의 이민 확대 정책에 따라 당시 한국보다 먹고 살기가 좋고 일자리가 많다고 소문이 난 호주로 유학생과 고급인력이 몰렸다. 그렇게 해서 현재 호주 전역에서 13만여 명의 한국인이 이민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이민 1.5세대들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호주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시의회 의원, 고위직 공무원도 배출하기 시작했다.

호주 한인사회는 2000년대 들어 한인들의 급속한 유입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의 한인 동포사회를 이루게 됐다.

이민사가 짧아 공무원 진출 역사가 짧아 미국처럼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고위직 진출자는 없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상당수 있다. 공직자로서는 시의원과 경찰청 간부 등이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주류사회 진출이 점차 늘어나 한인사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



상주는 전국 귤감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고장이다. 미국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수출되고 있을 만큼 귤감의 품질이 좋다.

낙동(洛東)에 숨겨진 유유했던 풍경... 경북 상주

1천300리 영남 땅을 적시는 강물이 온화하게 흘러가는 도시, 상주(尙州). 시야가 미치는 곳마다 싱그러운 초록빛이 넘실거리고, 익어가는 곡물이 바람결에 일렁인다. 산세가 나지막하고 물길도 부드러워, 마음이 이내 넉넉하고 평화로워진다. 남해 바다를 향해 천천히 내리흐르는 낙동강처럼, 상주에서의 발걸음은 여유롭고 느긋하기만 하다.



낙동강의 신비를 간직한 천혜의 절경으로 인조 15년(1637) 우담 채득기 선생이 이곳에 은거 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늘을 떠받든다는 뜻으로 '경천대(擎天臺)'라 부르고 있다.

사벌면에 국제승마장이 완공되면서 상주는 '승마의 도시'로 재탄생했다.

여부터 쌀, 곡감, 누에가 많이 나 '삼백(三白)의 고장'이라 했던 상주는 낙동강의 서쪽에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해 상주로 접어든 뒤 굽이굽이 돌다 남쪽으로 흘러간다. 상주에서 첫손에 꼽히는 절경인 경천대(擎天臺)는 산수의 합작품이다. 반원을 그리듯 크게 휘돌아 나가는 낙동강의 경치가 미려하다.

경천대의 한문을 풀이하면 '하늘을 떠받드는 대'이다. 낙동강 옆에 치솟은 바위가 마치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러한 지명이 생겨난 듯하다. 조선시대 봉림대군이 청나라로 갈 때 그를 수행했던 채득기 선생이 훗날 터를 잡은 뒤 선비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로 명성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경북팔경의 하나로 선정된 남장사(南長寺)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사찰이다. 김천 직지사(直指寺)의 말사로 상주의 진산에 해당되는 노음산 기슭에 자리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졌으며 1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실과 재건을 되풀이했다. 경내를 오르다 보면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와 숲 속에서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교과서보다 재미있는 박물관 기행

상주에 이르렀으나 행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상주박물관으로 갈 일이다. 고려시대에는 8목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고, 조선시대에는 경상도의 본영이 설치됐던 도시인 '상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천대에서 지척인 상주박물관을 방문하면 역사적으로 상주가 무척 중요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신라가 고구려의 남하를 효과적으로 막고 한강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였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했다.

자전거박물관, 자전거의 과거와 현재를 엿보다

상주는 산이 많지만 지형이 평탄한 편이다. 병성천과 북천이 흐르는 시내 주위로는 경사가 심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거의 없다. 1910년부터 자전거가 보급된 상주는 자전거 보유 대수가 약 8만5천 대로 가구당 2대 꼴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밝힌 국내 인구 대비 자전거 보급률이 16.6%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전거 도시'라 칭할 만한 수치다.

조선시대 상주에는 전령이 말을 갈아타는 역원(驛院)과 말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다. 도읍과 경상도를 잇는 상주에는 말이 무시로 드나들었다. 기술이 발달하고 자동차와 기차가 보편화되면서 말은 점차 사라졌고, 상주에서도 말을 구경하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2010년 경천대와 상주박물관이 있는 사별면에 국제승마장이 완공되면서 상주는 '승마의 도시'로 재탄생했다. 다만 말을 타는 목적이 '운송'에서 '레저'로 바뀌었을 뿐이다.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는 상주국제승마장은 15만 6천㎡의 부지에 장애물 비월 경기를 위한 주경기장(90×80m)과 마장마술 경기를 위한 실내 마장(86×30m)을 비롯해 연습 마장(80×40m) 2개, 1천146석의 관람석, 경기 운영실, 마사, 승마 체험장, 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참]**



상주는 '자전거 도시'로도 불린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녹색 자전거열차를 타고 상주역에 도착해 상주 자전거길을 성백영 상주시장, 자전거 동호인, 강강술래 서포터즈와 신나게 달리고 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고려시대에는 8목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고, 조선시대에는 경상도의 본영이 설치됐던 도시인 '상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2012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등록

11차 세계한상대회는 참가자 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참가자 개별 온라인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외참가자가 투숙할 호텔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텔별 선착순 마감이니 빠른 등록 부탁드립니다.

1. 등록 방법

- 온 라 인 : 대회 홈페이지(<http://hansang.korean.net>)를 통한 등록 신청
- 오프라인 :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E-mail(hansang@okf.or.kr) 또는 Fax(+82-2-3415-0198)로 등록 신청

2. 제공사항

- 국내 참가자 사전등록은 2012년 9월 17일까지(등록비 100,000원)며, 현장등록은 행사기간인 2012년 10월 15일 ~18일(등록비 150,000원) 사이에 가능합니다. 세미나, 문화행사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참여와 오·만찬 4회 제공, 한상기업 디렉토리 등이 제공됩니다.
- 국외 참가자도 기간은 동일하나 호텔에 따라 등록비가 다르므로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회기간



숙박 및 프로그램 참가와 식사(총 7회), 컨퍼런스kit, 한상기업 디렉토리, 숙소와 행사장 간 무료셔틀 등이 제공됩니다.

- ※ 숙박은 등록비에 따라 참가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텔별 선착순 마감)
- ※ 9월 18일 이후 등록은 현장등록비가 적용되며, 현장등록자는 개회식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 ※ 대회 기간 현장 등록 및 등록비 납부는 행사장(COEX)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독자후기 _ 유재범 한국

여름밤을 잠못들게 했던 런던올림픽의 감동과 환호, 세계 5위의 호성적을 거둔 것은 선수들의 노력과 빛나는 투혼이 빛을 발한 결과겠지만, 현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응원하던 동포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사전에 만반에 준비를 하고 가겠지만, 무엇보다 이런 국제적 행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현지 사정에 밝은 동포들이겠죠.

한인회가 선수수범해서 응원단을 조직하고, 선수단과

여행객들에게 숙식의 편의도 제공했기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 런던 하늘에 여러 번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걸 가능케 했으리라 봅니다.

올해는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얻는 의미 있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 재외동포들이 런던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로 뭉치고 한민족의 긍지를 높인다면 전 세계에 코리아의 기개를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www.hansang.net

제 11차 세계 **한상** 대회

THE 11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2. 10. **16** (Tue) - **18** (Thu), 서울 코엑스 **coex**

Global Korean Strengths,
'Hansang Network'

글로벌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

- | **주최** | 재외동포 경제단체
- | **주관** | 재외동포재단, 서울특별시, 매일경제신문·MBN
- | **후원** |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